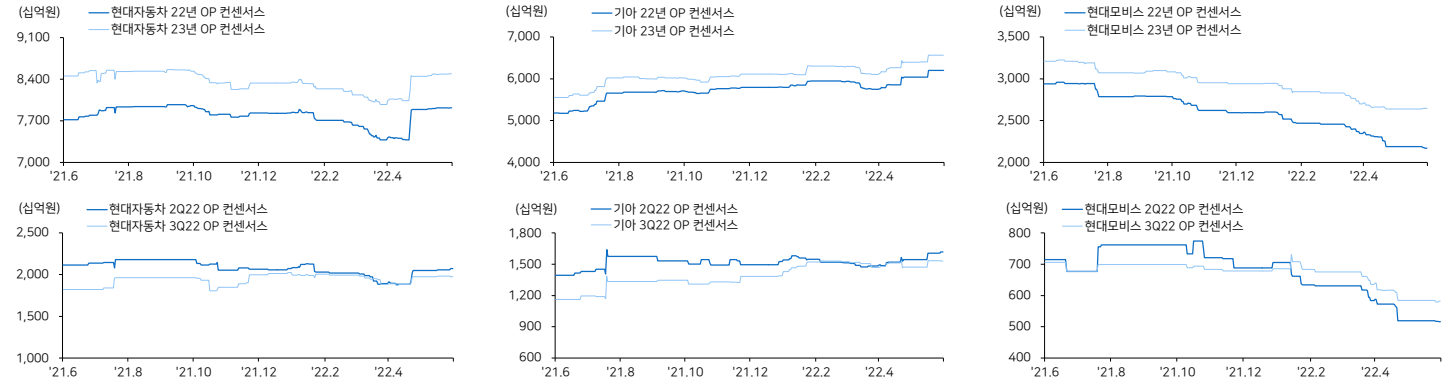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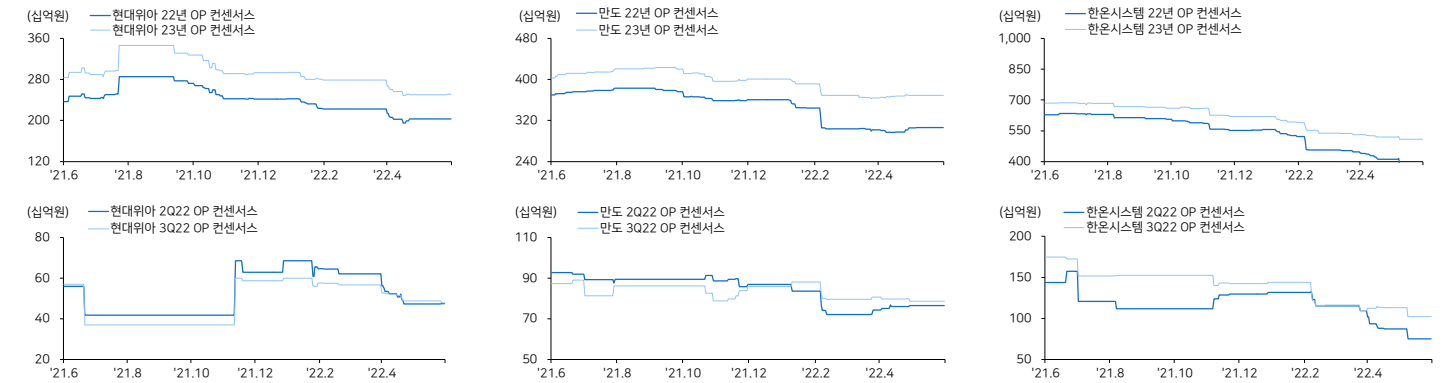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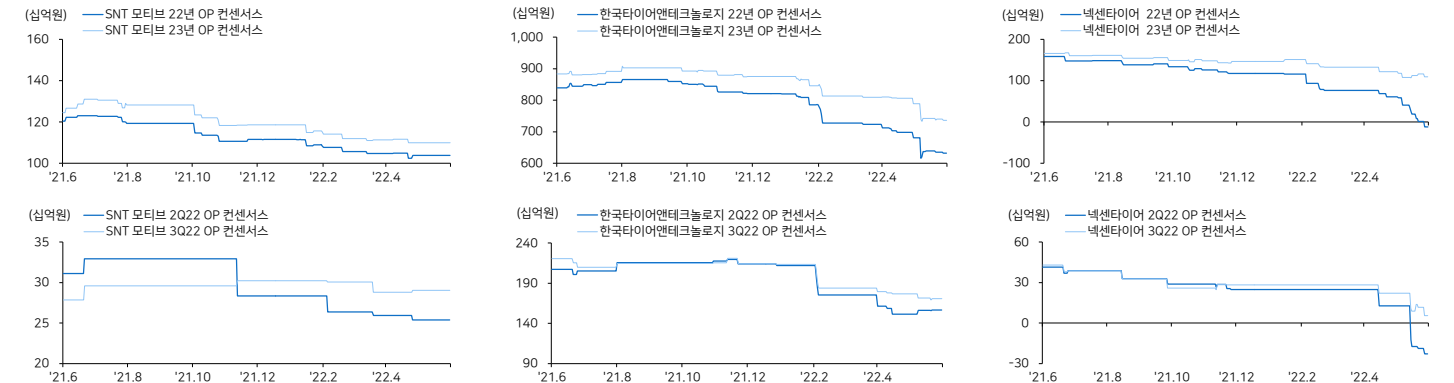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하루 2000대 생산 손실...공장서 직접 차 옮긴다 (한국경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현대차 하루 생산손실이 2,000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현재 정비중인 울산1공장을 제외한 2~5 공장 가동률은 50%대 선인 것으로 파악됨. 현대차/기아 사무직 직원까지 동원해 직접 완성차를 출하장으로 옮기는 중.  
<https://bit.ly/3typpp3>

### "전기차 전환은 '내 유리'...글로벌 자동차 업계 '경고' (한국경제)

BMW를 필두로 토요타, 스텔란티스 등이 내연기관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국 자원의존도를 핑계로 전기차 전환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보임. 포드/현대차/기아/스바루 등이 재고일수를 유지하고 혼다/토요타/물보 등이 재고일수 감소가 나타남.  
<https://bit.ly/3xnpv5S>

### U.S. vehicle inventory stays flat at 1.13 million (Automotive News)

미국 5월 신차 재고는 공급차질과 강한 수요로 인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1.1백만대, 35일)을 유지함. 여전히 YoY -30% 낮은 수준이며, 포드/현대차/기아/스바루 등이 재고일수를 유지하고 혼다/토요타/물보 등이 재고일수 감소가 나타남.  
<https://bit.ly/3MF57zL>

### Russia forecasts car sales to halve in 2022 - ministry (Reuters)

러시아 산업부는 2022년 러시아 자동차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든 75만대 수준일 것으로 알려짐. 유럽기업협회(AEB)에 따르면 러시아 5월 신차 판매는 24,268대로 YoY -83.5%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남.  
<https://reut.rs/3HeTr6W>

### 르노코리아차 "2026년 전기차 출시...중지리외 경영권 없어" (연향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오는 2026년 국내 전기차 출시 계획을 확정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중국 Geely 자동차의 경영 참여가 없는 점도 명시함. 2030년 한국시장의 BEV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예상함.  
<https://bit.ly/3MLDqqr>

### 87조원 시장이 열린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황금알 낳는 거위" (머니투데이)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원자재 확보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유망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https://bit.ly/3HeLlLe>

### Elon Musk says Tesla had a 'very tough quarter' and needs to rally in leaked email (electrek)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2분기 인도량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장려했으며,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량 신기록/기가 배틀런 ModelY 생산량 1,000대 달성/가상화가 생산 정상화를 강조했다.  
<https://bit.ly/3NPMUK>

### Chinese EV maker Nio to make self-developed battery packs from 2024 (Reuters)

NIO는 '24년 하반기 800V 배터리팩 생산을 계획 중이며, 현재 400V 이상의 직원이 배터리 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남. NIO는 최근 2분기 인도량을 1분기 인도량(25,768)보다 적은 2.3~2.5만대 수준으로 전망함.  
<https://reut.rs/3MLe7Qz>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